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선거홍보물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16층
전화 02)2670-5807 팩스 02)722-5806
<http://kmwu.kr/elec/2011/>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부장 후보
수석부지부장 후보
사무국장 후보

정동훈
강성희
권성대

부지부장 후보 **기호 1**

조승환

부지부장 후보 **기호 2**

조성옥

원칙과 혁신으로! 다시서는 전북지부!

현장 중심의 활동,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지부를 이끄는 지도부는 꿈수가 아닌 진정성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쏘가 판치고 하루아침에 밥먹듯이 말을 바꾸며 거짓된 변명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의 질서를 훼손하고 분열하는 것에 대해
일체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검증된 강력한 지도력!! 정동훈 강성희 권성대가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천백 대오의 중심에서 전국의 모범사업장으로 평가 받았던
노동조합을 이끈 지도력!!
해고, 구속도 마다하지 않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투쟁의
헌신적 실천력!!
지역연대와 중소기업사업장의 강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낸 노련함!!
정동훈 강성희 권성대는 말로 사업하지 않겠습니다.
위기속에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전북지부의
새로운 기풍과 정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태일열사, 이소선어머니의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민주노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소선어머니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더욱더 거세지는 지금,
노동자들에게 오로지 단결, 단결, 단결을 강조하셨습니다.
단결만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열사의 뜻을 기리자는 것은 열사의 정신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두분의 정신 잊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민주노조 제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후보 권성대

92년 일진소재산업 입사
00년 노동조합 결성 주도 해고
04년 일진소재산업 노동조합 사무국장(1,2,3대) 역임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대의원(00년~04년) 역임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의원(00년~04년) 역임
09년 일진소재산업지회 2대 지회장
금속노조 중앙대의원
11년 익산지역금속지회 지회장(현)

지부장후보 정동훈

95년 대우상용차 입사
00년 대우상용차노동조합 대의원
01년 대우상용차노동조합 기획부장
05년 금속노조 중앙대의원
07년 금속 중앙선거관리위원
09년 타타대우상용차지회 10대 대의원
10년 타타대우상용차지회 11대 대의원
11년 타타대우상용차지회 지회장(현)
민주노총 군산지부 비상대책위원장(현)

수석부지부장후보 강성희

04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한신기업 입사
05년 조합설립시 조합가입
06년 한신기업 현장위원
07년~09년 현자전주 비정규직지회 대의원
07년 현자 전주 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장
08년 현자 전주 비정규직지회 버스부 대의원대표
09년 현자 전주 비정규직지회 3기 지회장
10년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중 수배
11년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중 해고·구속

7기 금속노조 전북지부 임원선거 정동훈 강성희 권성대 임원후보





혁신1. 현장을 중심으로 소통하라 전북지부!

현장과의 소통 강화, 현장 중심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일상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매월 한주를 전북지부 현장 순회 집중의 날로 정해 조합원을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 현장을 중심으로 이동, 지부 사무실을 현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겠습니다.

혁신2.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등대 빛나라 전북지부!

전북지역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믿음직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 비정규직 담당 임원이 책임있게 집행하겠습니다.
-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승리를 위한 원하청 공동투쟁을 조직하겠습니다.
- 공단 조직화 사업을 위해 각 지역별 담당 임원이 발로 뛰겠습니다.

혁신3 지역연대의 모범, 단결하라 전북지부!

지역연대의 모범을 새롭게 창출하겠습니다.

- 지역별 공동 체육대회, 역사기행 등 지역공동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 원하청 공동투쟁, 기업지부의 사업장 교섭 참여를 모아내 승리하는 임단협투쟁을 만들겠습니다.
- 교육사업, 노안 사업 등 각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함께하는 공동사업의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혁신4. 무기력 NO! 생동하는 전북지부!

원칙있는 집행으로 전북지부 권위를 세우겠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실적 지원 모색:
간부교육, 조합원 수련회 행사시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 모색.
- 간부 부족, 현장 간부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정례화
- 조합원 교육, 확대간부 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확보하여 현장에 보급하겠습니다.

혁신5. 한다면 한다. 새로운 전북지부!

전북지부 투쟁의 기풍을 세우고 새로운 전북지부를 만들겠습니다.

- 분명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모아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큰 판을 만들어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겠습니다.
- 투쟁 조직부터 새롭게, 선전물 사전 배포 등으로 현장과 함께하는 투쟁을 조직하겠습니다.

금속노조 7기 전북지부 임원은 현장 중심의 활동이 최우선입니다.

7기 전북지부는 현장의 문제를 최우선하여 해결할 수 있는 투쟁력의 복원과 지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도력과 현장의 힘으로 혼란스러운 전북지부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7기 금속노조 전북지부 임원선거 정동훈 강성희 권성대 임원후보

지부장을 힘있게 보좌하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지난 시기

금속노조, 전북지부의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종종 임원들의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 현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부를 이끌 지도부는 꿈수가 아닌 진정성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쏘가 판치고 하루아침에 밥먹듯이 말을 바꾸며 거짓된 변명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조직의 질서를 훼손하고 분열하는 것에 대해 조승환은 일체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부지부장의 본연의 임무에 맞게 위로는 지부장을 힘있게 보좌하고

아래로는 현장조합원과 함께 숨쉬고 소통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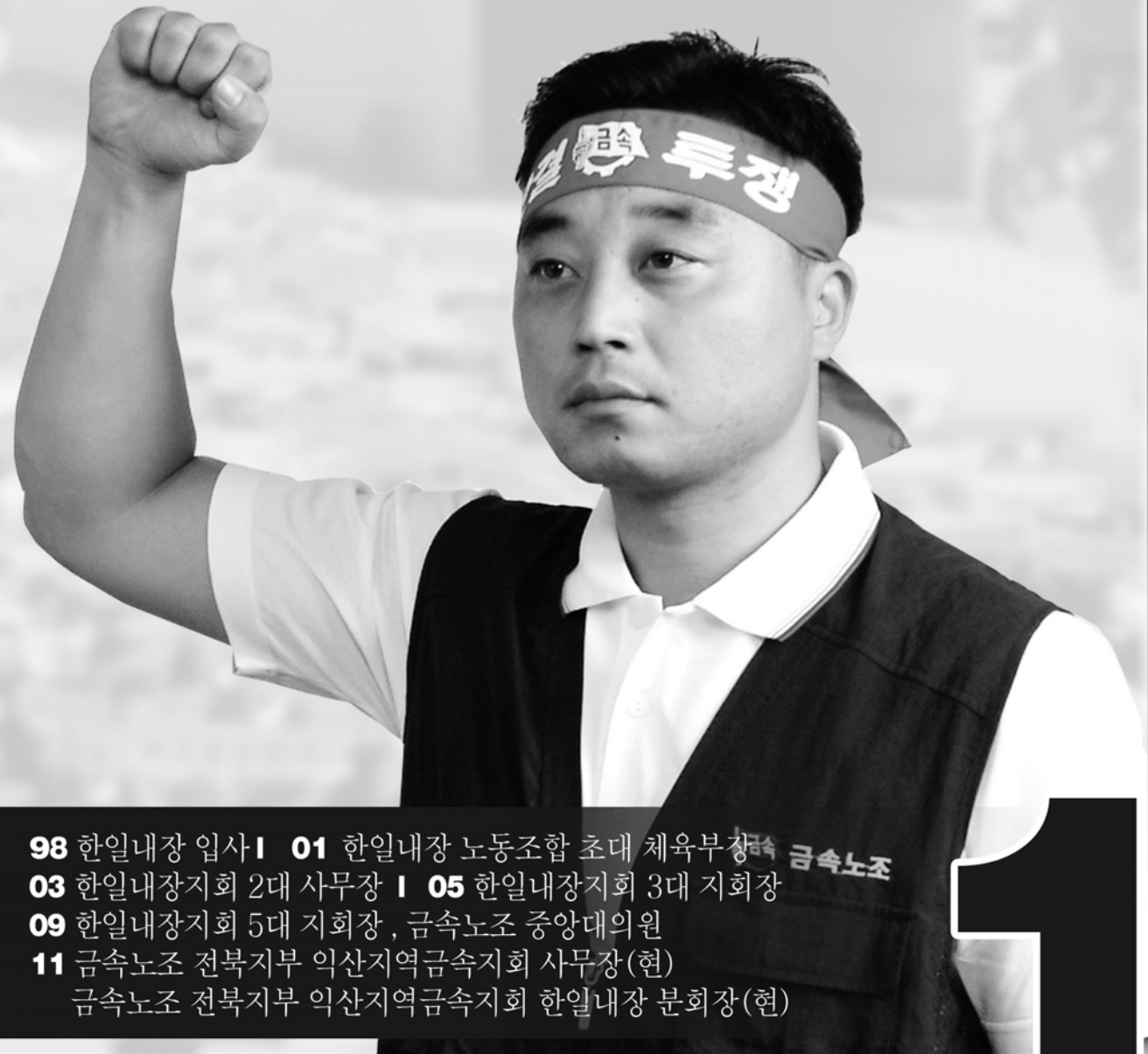
조합원과 간부를 하나로 묶어내는 통일 단결을 보장할 사람

바로 조승환입니다

우리 앞에는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 조승환은 지부장을 중심으로 2000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진보적 정권교체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선봉에서 헌신적으로 복무하겠습니다.



하
위
권
선
투

1. 통일과 단결로 일사분란한 지부 집행체계 구성!!

2. 지부의 주인은 2000 조합원!! 소통강화를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3. 지역, 공단 미조직사업 강화로 중소 영세 사업장의 희망을!!

4.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로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꿈이 아닌 현실로

98 한일내장 입사 I 01 한일내장 노동조합 초대 체육부장 금속노조

03 한일내장지회 2대 사무장 I 05 한일내장지회 3대 지회장

09 한일내장지회 5대 지회장, 금속노조 중앙대의원

11 금속노조 전북지부 익산지역금속지회 사무장(현)

금속노조 전북지부 익산지역금속지회 한일내장 분회장(현)



7기 금속노조 전북지부 임원선거

부지부장후보

조승환

기호

1

전북지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조합원과 함께 가겠습니다

현장 민주주의 강화!

노동계급의 연대와 단결!

출마의 변

저는, 부지부장 출마 약력을 정리하면서
자나온 세월을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구속, 2번의 집행유예, 수백만 원의 벌금, 2번의 산재 사고, 2번의 해고,
해고자 복직투쟁중 2번의 고공농성 2번에 걸친 21 일간의 단식투쟁,
비정규직 투쟁과 한미 FTA 반대투쟁으로 두 번의 부상과 수술,
수년에 걸친 노숙투쟁을 겪으면서 치열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동자로 살아온 25년의 세월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고,
이 기간 동안 수많은 투쟁을 통해 많은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해고자 복직 문제는 어용노조와 사측의 탄압속에서도,
50미터의 고공 굴뚝에서 132일(4개월 반간의
목숨을 건 농성을 통해 겨우 복직을 합의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
2년여에 걸친 그룹 본사 농성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 10월 마침내 16 년만의 복직을 쟁취해 냈습니다.
그래서 전북지역에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어렵고 힘들게 투쟁하는 사업장에 대해 열심히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 금속노조 4기 전북지부 초대 수석부지부장으로써 부족하지만
지부를 중심으로 지회들을 모으려는 사업을 열심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복직투쟁을 위해 금속 전북지부를 떠나있는 동안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희망보다는 실망스런 소식들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전북지부를 중심으로
금속 조합원을 하나로 모아내고 실추된 노동조합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소같은 추진력으로 무기력 타파!

조성옥이 걸어온 길

86 전두환 퇴진 투쟁으로 구속
94 군산 기아특수강 2차 해고
98 1년 4개월 465일의 투쟁을 통해 기아특수강
정리해고 철회 투쟁 승리
99 군산지역 5개사업장 연대투쟁 집행위원장
99 기아특수강 정리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위한
군산노동부 앞 단식농성 진행
01 금속연맹 전북본부 교섭부장, 사무국장
03 회사 매각에 따른 기아특수강 50미터
굴뚝농성투쟁 전개(집행유예)
04 4기 전북지부 수석부지부장
05 한미FTA 저지 투쟁 및 KM&I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전개으로 벌금형
07 세아베스틸 복직합의 이행촉구를 위한 회사 및
그룹본사 투쟁(2년 2개월)
09 해고된 지 16년만에 복직
현) 세아베스틸 사원
금속노조 전북지부 개별조합원

5대 실천 공약

1. 조합원이 주인으로 사는 전북지부 건설

- 현장조합원과 함께 소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 안겠습니다.
-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현장순회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의 일상활동 강화와 일상투쟁 회복으로 조합원이 주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부, 지역지부 구분 없이 지역현안에 금속노동자가 앞장서 투쟁하게 하겠습니다.

2. 복수노조시대에 맞는 조직화 전략 수립

- 신규사업장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을 강화하여 조직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조를 민주화하고자 하는 세력과 연대해 민주노조를 건설하겠습니다.

3. 조합의 역량강화를 위한 간부교육 강화

- 산별의식으로 무장된 간부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 지부가 앞장서서 지역연대운동 강화

-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결함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민중의 힘과 지역의 평화통일운동대를 더욱 높여내겠습니다.

5. 현장 중심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지역 정치활동 강화

- 조합원이 주체로 나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방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 지역의 노동자 정치활동에서 지부가 모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

부지부장 후보

조성옥